

제 17 장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 28 : 5~6).

수년 전에 나는 중국에서 온 한 훌륭한 선교사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포티에트(Dr. E. M. Poteat) 박사님입니다. 그의 묘사가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잘 기억하고 있는 어떤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상해 대학교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 중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포티에트 박사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보아온 많은 죽은 사람들과 내가 이때까지 들어온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때까지 여전히 죽어 있고, 분명히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죽은채로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젊은

대학생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역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사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은 예외이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셨고, 그래서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데까지 미치게 됩니까? 만약 어떤 예외적인 분이 있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마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허위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우리 영혼이 붙잡을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이 대답의 진리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은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옥신각신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 의미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더스 강을 건넌 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참으로 사실인가? 그것은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역사가들의 논쟁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시저는 참으로 루비콘 강을 건넌가? 그것은 어찌되었건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가들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워싱턴이 델라웨어 강에 일 달러를 던져 넣었는가? 그는 그 유명한 벚나무를 베었는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는 역사가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그것의 의미와 그 결과가 수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17에서 이상한 어떤 한 구절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은 갈릴리에 있는 산인데, 예수님은 그 산에서 전에 오백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마 28 : 17).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썩지 아니 할 몸을 가지시고 영광을 받으신 몸으로 그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조금 이상한 문구가 하나 나타납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전달해 주시고 확신케 해 주셔야 할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사실이 되지도 않고 진리가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스에서 벌어진 그 유명한 사건에서 이와같은 훌륭한 실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스왈드(Lee Marrey Oswald)는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는데, 그의 뒤에는 아무런 배후가 없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음모도 없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워렌 위원회(Warren Commission)가 제시한 보고서를 믿느냐고 물어 본다면, 그들 가운데 절반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겠지만, 나머지 다른 절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유명한 여론 조사가인 조지 갤럽(George Gallup)은 미국인의 여론을 조사한 뒤에 “50퍼센트는 그 보고서를 믿고, 나머지 50퍼센트는 그 보고서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그 암살 사건만큼이나 철저하게 조사된 사건이 역사에 없을 정도이며, 그렇게 즉각 조사를 행한 사건도 없을 것입니다. 뒤이어 개최된 국회에서도 그 사건에 대한 더 세밀한 조사를 위하여 수 백만 달러의 비용을 충당해 주었으나, 미국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사건의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견

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진리를 확신시켜 주셔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역사가인 누가는 그가 우리 주님의 생애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에 관한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세번째 복음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건이 사실이며, 나에게 있어서 진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기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공박할 수 없는 그리고 논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의 진리와 힘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신을 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사실

우리 주님의 생애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중뿔나게 나서지 않고, 자신의 사역에 헌신했던 생애를 어디서고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었으며,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이전에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들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서 그 대목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을 지켜보고는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애는 치욕과 수치의 십자가 처형으

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소중한, 사랑스럽고, 그렇게 의미있는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또 그렇게 악하고 수치스럽게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악은 영원히 선을 이기고 있습니까?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영원히 이기고야 맙니까? 죽음과 공포와 폭력 그리고 오류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까? 또 다른 마지막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오류와 죽음과 죄의 무덤에 묻히는 것 외에 승리와 영광과 선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두움의 신비인 인생의 종말에 어떤 해답은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사실

우리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금요일에 장례가 치루어져서 백파운드의 향료와 함께 싸여 봉인되어진 무덤 안에 놓여졌고, 그 무덤에는 로마의 경비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 그는 그 무덤에서 수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곱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주일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시체를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영원히 침묵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를 베드로와 그 사도들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

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시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발생하였고, 그의 시체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가능한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손이 그 시체를 가져갔거나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손이 그 시체를 가져간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손이 그러한 짓을 했다면, 그것은 그의 친구의 짓이거나 그의 적들의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그 시체를 가져 갈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럴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 무덤은 로마에 의하여 봉인되어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시체를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훔쳐갔다면, 어떻게 해서 그 무덤에 있는 수의가 그렇게 곱게 개어져 있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그의 적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습니까? 그러나 그의 적들은 그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갈까봐 그렇게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그가 죽은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무덤을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 자신은 그 시체를 훔쳐갈 이유가 전혀 없었고, 또한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무덤은 비었습니다.

심리적인 사실

우리 주님에 관한 다른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랍고도 극적인 사도들의 변화인데, 그것은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도들은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난 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빌라도에게 보고했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로마 군병으로 하여금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거기에서 그의 생명의 붉은 피가 쏟아져 흘러 내렸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가 죽은 것을 기뻐하면서 자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그의 무덤에 와서 그 시체에 향품을 처리하여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유령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도 가운데 한명인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 20 : 25).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살아나셨다”, “나는 그를 보았다”고 외치자 온 세상이 흠칫 놀랍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그를 보았다”고 외칩니다. 나머지 열 한명도 “우리는 그를 보았다”고 외칩니다. 오백여 명의 형제들도 “우리는 그를 보았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사십일에 걸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차례로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때 발생한 그 사건을 여러가지로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어떤 은밀한 장소에 모여 앉아서 “이것은 끔찍한 일이야. 우리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꾸며야 한다구. 우리들은 이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을 해야돼”라고 거짓으로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 거짓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끓는 커다란 가마솥에 빠져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뻔히 알고 말한 그 거짓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

다 ! 그들은 자신들의 그 증언을 위해서 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직접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 그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리학적인 사실입니다.

교회론적인 사실

그러나 우리 주님에 관해서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 지상의 곳곳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람들이 일시에 3,000여 명이나 침례(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는 5,000여 명이나 침례(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자들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는 50,000여 명에서 100,000여 명의 교인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21:23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악한을 그들의 주님으로서 생각할 수 있었으며, 교회 조직의 근거로서 간주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영광스럽고 선구자적인 선포 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매우 적은 무리들, 이들은 실제로, 대부분이 노예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예배 제

도에 직면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제도에 항거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가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상을 향한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 나라와 황제의 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죽음으로써 그 댓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피로 침례(세례)를 받았으며,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조차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은 노예 수용소로 보내질 위험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교회가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론적인 사실입니다.

구원론적인 사실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또다른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론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다소의 사울의 변화와 회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사람은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나 능력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얼마나 놀라운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신약성경에서 열 세편의 서신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역시 전적으로 바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썼거나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분량이 신약성서의 스물 일곱권 가운데서 열 여섯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저서의 내용은 놀랍고도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의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바울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가 죽기까지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편지를 받고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가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바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서 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 : 3~7).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때에 그는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읍니다. 그날의 모든 사실과 모든 증거는 세심하게 조사되어지고 명확하게 입증되어 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만약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것을 거짓이라고 거부하여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론적인 사실이 사도 바울의 변화와 회개 안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나의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보았고, 나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말합니다.

문학적인 사실

주님에 관하여 우리는 또 다른 사실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애에 관한 복스러운 네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은 비할데 없이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천재들에게도 불가능하였던 바로 그 업적을 성취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과 그토록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것을 써내려 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한 일을 성취해 낸다는 것은 이 세계가 배출해 낸 가장 훌륭한 재능을 가진 작가라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사실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호머의 작품에 나타나는 신들은 가공의 신들입니다.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의 이야기도 허구입니다. 그 내용의 흐름도 허구적이며, 우리도 그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면서 읽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천재이었던, 만사에 능통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보십시오. 『햄릿』에서 나타나는 유령은 각고를 기울인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즉각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허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장 위대한 비극을 읽을 때에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어 본다면, 내면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진리를 차례대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진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사실적이며,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문학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것을 살펴 보십시오.

경험적인 사실

그러나 여기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 질 수 있고 확인되어 질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도 죽었습니다. 워싱턴도 죽었고, 처칠도 죽었습니다. 샤를르망 대제도 죽었고, 정복자 윌리엄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 위대한 영웅들의 면전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의 주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아름답도록 자연스러운 것이며, 영적으로 감동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그러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수 십년 동안에 믿음을 배워온 우리들이 지금도 살아 계신 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연한 것입니까? 또한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귀를 기울이시며, 순례자의 여행길에 있는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 내에서 나에게 다가와서 “혹시 크리스웰 목사님이 아니십니까?”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내 옆 자리에 앉아서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유주의적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이론들을 소개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론 가운데는 문서 가설(documentary hypothesis)이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과 기적들과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성경은 공상과 허구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학위는 그러한 학문적인 학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졸업을 한 뒤에 그의 교파에서 가장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의 부목사로 봉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과 신앙을 부인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적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 갑니다. “어느날인가 주의 만찬을 집행하는 예배였는데, 내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순간에 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나는 그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예수님이 죽음에서 육신적으로 부활하셨고,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놀라운 깨달음이 나에게 다가 왔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나의 구세주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의 경험을 들으면서 존 웨슬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였던 그는 어떤 다른 목회자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던 체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웨슬리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설교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젊은이의 체험을 들었을 때 웨슬리의 생애에서 발생한 그 체험을 다시 한 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은 계속해서 그의 말을 이어 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마음으로부터 드렸던 그 예배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그 자유주의적인 교회의 부목사직을 사임하고 지금은 어떤 학교 교실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몇 명 모았습니다. 나는 매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말을 하리라고 목사님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수만명의 사람들은 그 청년이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 그의 말이 옳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나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걸어 가십니다. 우리가 궁핍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는 구세주이신 그분을 신뢰합니다. 어느 날엔가 나는 그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은 논쟁할 수도 반박할 그 어떤 여지도 없으며 영원히 확실한 사실입니다 !